DBpia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The Conceptua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PEPC-MS)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저자
(Authors)
문민권, 권성호, 심윤식
Moon, Min Kwon, Kwon Sung Ho, Shim Yun Sik

출처
(Source)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2021.8, 127-143 (17 pag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3), 2021.8, 127-143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체육교육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0055

APA Style
문민권, 권성호, 심윤식 (202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127-143.

이용정보
(Accessed)
한국교원대학교
210.110.71.***
2022/01/05 06: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21, 제26권 제3호, 127-143. http://dx.doi.org/10.15831/JKSSPE.2021.26.3.127
JKSSPE, 2021, Vol. 26, No. 3, 127-14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The Conceptua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PEPC-MS)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문민권(곤지암고등학교, 교사) · 권성호(서울대학교, 교수) · 심윤식(순천향대학교, 교수)**

Moon, Min Kwon(Gonjiam High School, Teacher) ·
Kwon Sung Ho(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him Yun Sik(Soonchunhyang University, professor)

목적: 본 연구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과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중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는 자기 성장 역량(하위 요인-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 및 공동체 참여 역량(하위 요인-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과 같이 2개의 역량 영역과 각 영역별 4개의 하위 요인 구조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는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18문항, 공동체 참여 역량 4요인 15문항으로 결정되었다.

결론: 연구에서 도출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과 구조를 통해 체육수업 현장에서 역량 개념 이해와 평가를 위한 준거를 마련하였으며,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는 중학교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심리 역량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체육수업, 심리 역량, 자기 성장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Ⅰ. 서론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발현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곧 '특정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역량 역시 McClleland(1973)에 의해 같은 맥락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직무 분야에서 성과는 개인의 총체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역량이라고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역량은 심리학 연구 분야의 여러

* 이 연구는 문민권(2021)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및 척도 개발'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Kwon, Sung Ho (sh1kwon@snu.ac.kr)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학자들이 동기이론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Dubois, 1993; Spencer & Spencer, 1993).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 개념의 공통점은 역량을 특정 직무와 상황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과 지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총체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정성휘, 2004; 홍순정, 장은정, 서윤경, 2004). 이는 역량이 직무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개인을 그것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는 점, 즉 직무에 대한 개인 차원의 생물학적, 심리적 준비로서의 지식이나 기능적 수준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기에 용이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직 차원의 전략을 포함하는 구성요소로서 개념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임효신, 2015).

이러한 개념적 확대에 기반하여 진행된 역량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역량의 심리적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있다(이지연 등, 2009; 임효신, 2015). 임효신(2015)은 중학생 진로역량으로 자기관리, 그 하위 요소로 자기이해, 긍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기술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지연 등(2009)은 진로개발 역량에 자기이해,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OECD Education 2030은 미래 사회에 학생이 갖추어야 역량으로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변혁적 역량을 제시하였다(이근호 등, 2017).

역량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역량의 다섯 가지 개인의 내적인 특성 중 심리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이 지식, 기술, 자기개념, 동기, 특질의 다섯 가지 개인 내적 특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특성은 빙산과 같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인 지식과 기술, 수면 아래에 위치한 내면적 영역인 자기개념, 특질 및 동기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빙산의 거대한 부분과 같이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즉 심리 영역이 역량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역량의 심리 영역은 학습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는데, 이는 역량이 인과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기, 특질, 자기개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Spencer & Spencer, 1993), 이러한 행동이 교육적 성과로 이어질 때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지식, 기술과 비교하여, 자기개념, 동기, 태도 및 가치와 같은 역량의 심리 영역은 역량 구조의 중간 부분과 심층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

역량의 심리 영역은 체육 분야에서도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운동 소양(sport literacy)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운동 소양의 요소 중 운동 참여자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하는 운동심(心)은 내면에서 운동을 이끌어 가는 내적 동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며, 운동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인 운동능(能)과 지식적인 부분인 운동지(智)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즉, 운동 소양은 교육적 의미에서 현대적 역량과 유사하며, 운동심은 동기적 측면을 가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생이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체육과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건강, 도전 등의 신체활동 가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15). 학교 현장에서 체육은 새롭게 도입된 체육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은 체육과 교과 역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체육과 역량의 이해가 현 교육과정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에 대한 개념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진의남 등, 2015). 그 이유는 체육과 교과 역량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건강, 도전 등의 신체활동 가치와 큰 차이 없이 내용 요소에 가깝게 개념화되었기 때문이다(박정준, 2017; 윤기준, 2019). 교사는 현행 체육교육과정에 따라 도전 영역에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등의 역량을 골고루 또는 선택적으로 함양할 수 있지만, 도전 영역에서는 신체 수련 능력 중심으로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측면의 내용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 측면이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역량 중 심리적 측면, 즉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량의 구조적 차원에서 태도 및 가치관을 포함하는 심리 영역은 개념 탐색을 위한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체육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 역량과 관련하여 심리 역량은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를 위한 주제로 다루어지기에 앞서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의미와 구조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체육수업에서 심리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개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조를 가졌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김낭규, 2020; 권택환, 2019; 박지영, 김수연, 장경환, 2019; 조기희, 2017), 양적 연구(권윤철, 2017; 남재식, 이영석, 2018)는 일부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는 수업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경험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는 점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 교과 역량의 요소를 분석하고 하위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신체 표현 역량에 한해 일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신민혜, 조남기, 2015; 홍애령, 조미혜, 2019), 하위 요소 도출을 통한 구조 정립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과 더불어 체육수업 현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의 양적 효과 검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시기와 성인기의 성공을 가져오는 복잡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Turner, Trotter, Lapan, Czajka, Yang, & Brissert, 2006),본격적으로 역량적 요소들을 습득하고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임효신, 2015). 즉, 중학교 시기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정상화와 관련하여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 기능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 기간 동안 체육활동은 신체적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의미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Azzarito & Soloman, 2006), 사회심리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다(Siedentop, Doutis, Tsangaridou, Ward, & Rauschenbach, 1994). 결과적으로 중학교 시기는 심리적 측면에서 성장의 기회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육수업에서 심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업 심리 역량의 개념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하여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표 1〉과 같이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사, 직장 인사업무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을 위해 약 400명 정도의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견해에 맞춰(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424명을 본조사를 위해 표집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 누락 및 불성실 응답이 발견된 11건을 제외한 후 〈표 2〉와 같이 총 41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번	연령	직책	전공(과목)	소속	기타
1	41	교수	스포츠심리학	대학교	박사
2	37	교수	스포츠심리학		박사
3	41	교수	스포츠교육학		박사
4	39	교수	스포츠교육학		박사
5	45	연구원	스포츠교육학	교육과정 평가원	박사
6	45	연구원	영어교육		박사
7	48	교사	체육	중학교	박사
8	47	교사	체육		석사
9	45	교사	체육		박사
10	44	교사	체육		석사
11	42	장학사	체육	교육 지원청	
12	41	장학사	체육		
13	47	팀장	체육	U사	인사팀
14	42	팀장	회계학	Z사	인사팀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413)

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여학생	178	43.1
	남학생	235	56.9
학년	1학년	121	29.3
	2학년	109	26.4
	3학년	183	44.3

당사자의 동의와 함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및 자녀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 연구 절차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및 예비 문항 개발

본 연구의 기초 자료 작성을 위해 2015 체육과 교육과정, 일반 교육 분야, 스포츠심리학 분야 역량 관련 연구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념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타당화는 임효신(2015)의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검토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질문지에 따라 ①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의 적절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선정과 영역별 개념의 적절성, ②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인 선정 타당성 및 하위 요인 개념 적절성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연구자 편견과 독단에 의한 분석을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스포츠심리학자, 교육과정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쳤다(김영천, 2012).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위원의 제안에 따라 체육수업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86개의 초기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이들 문항을 대상으로 스포츠심리학자, 체육교사, 연구자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명료한 표현으로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후,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측정도구 하위 요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 의미가 중복된 문항, 특정 종목이나 활동을 제시한 문항 등을 제외하여 각 요인별 6개 문항 총 48개 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중학생에게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대책으로 설문 참여자 간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문항 적합도 검사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구조가 탐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강상욱, 2019, 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구조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개념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3. 자료분석

1~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수합된 자료에 대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념과 구조 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역량 영역과 하위 요인의 개념 및 구조 적합성에 대해 2,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에 대한 문항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21.0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에는 내적합치도(Cronbach' 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을 활용하여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의 구안 및 타당화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선행연구(교육부, 2015; 이미경 등, 2017, 임효신, 2015; OECD, 2003, 2017) 고찰을 통해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개념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길러야 할 인지,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구안한 후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54개 영역의 역량 요인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핵심역량 요소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된 역량,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체육과 역량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안)을 도출하고, 각 영역 및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안)을 정의하였다. 또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개념 모형은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 역시 2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구조, 영역 및 하위 요소 개념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도출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의 최종 모형은 〈표 3〉과 같다.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발

1) 예비문항 개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개발은 2, 3차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위원에게 각 영역별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표 3> 최종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길러야 할 인지,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	
영역	개념적 정의	
자기 성장 역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하위 요인	개념적 정의
	긍정적 자기인식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자기 관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진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전략적 문제해결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역량	
	하위 요인	개념적 정의
	존중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도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별 6문항 총 48문항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2) 자료분석 결과

(1) 요인 분석 적용 가능성 검토

설문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문항별 반응분포를 활용하여 문항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문항별 평균 3.33~4.37, 표준편차 .729~1.144, 왜도 -1.038~-.135, 첨도 -.735~1.712로 나타났으며,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 또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4).

(2) 확인적 요인분석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자료의 절반(n=206)을 무선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 탐색 과정을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자기 성장역량과 공동체 참여 역량을 구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기준으로 χ^2는 p>.05, χ^2/df는 3이하,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로 정하였다(배병렬, 2014).

먼저,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24개 문항에 대해 1,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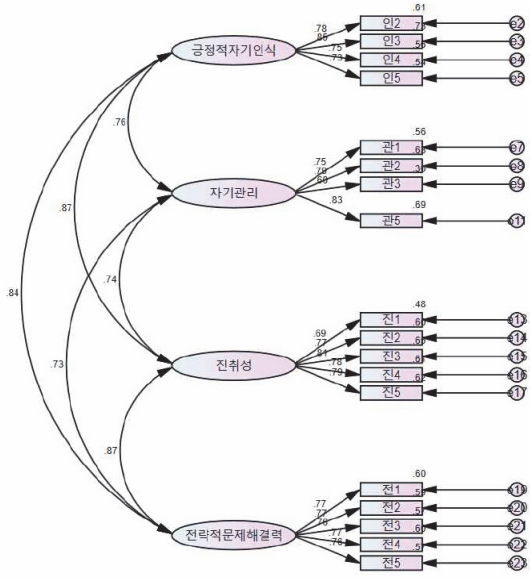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표 4> 자기 성장 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1차	617.572	246	2.506	<.001	.862	.877	.086
2차	504.987	203	2.488	<.001	.894	.879	.085
최종	200.442	129	1.554	<.001	.968	.962	.052

화 회귀계수 .60 미만 또는 오차 분산 간 상호 관련성이 유의한 문항에 대해 내용 검토 후 긍정적 자기인식 2문항, 자기 관리 2문항, 진취성 1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1문항 총 6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18문항에 대해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값은 200.442(*df*=129, *p*<.001)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χ^2/df 값을 확인한 결과 1.554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968), TLI(.962), RMSEA(.052)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회귀계수 역시 <그림 1>과 같이 .60~.85로 양호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중 자기 성장 역량 영역에 대한 측정도구는 <표 6>과 같이 긍정적 자기인식 4문항, 자기관리 4문항, 진취성 5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5문항 총 4개 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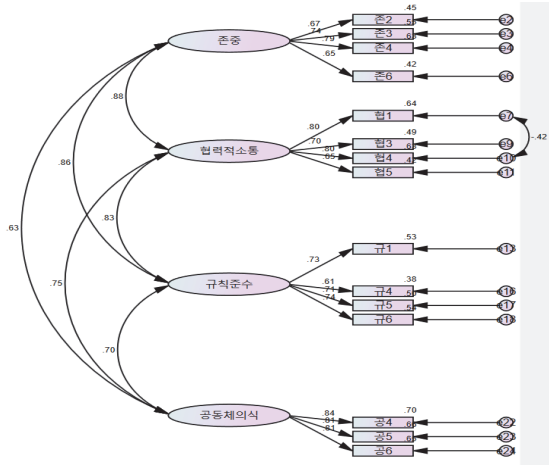
<그림 1> 자기 성장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5> 공동체 참여 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1차	676.442	246	2.750	<.001	.838	.818	.092
2차	503.048	202	2.490	<.001	.875	.857	.085
최종	117.565	83	1.416	<.001	.977	.971	.045

다음으로, 공동체 참여 역량 4요인 24개 문항에 대한 1,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표준화 회귀계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 내용 검토 후 존중 2문항, 협력적 소통 2문항, 규칙 준수 2문항, 공동체 의식 3문항 총 9개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고, 문항 간 상관이 모형 적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유사한 형식의 표현 방식을 공유하는 협력적 소통 2개 문항에 대해 수정지수(1개)를 사용하여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체 참여 역량 15문항에 대한 3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는 117.565(*df*=83, *p*<.001)로 유의하여 영가설을 기각하였지만, χ^2/df는 1.416이고, 모형 적합도 지수 CFI(.977), TLI(.971), RMSEA(.045)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또한 <그림 2>와 같이 .61~.84의 양호한 값으로 나타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중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 측정도구는 <표 6>과 같이 존중 4문항,



<그림 2> 공동체 참여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표 6>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영역	요인	문항
자기 성장 역량 (18문항)	긍정적 자기인식 (4문항)	1.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2. 나는 운동 능력이 우수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3. 체육수업 환경이 바뀌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4.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향상된 운동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관리 (4문항)	5. 나는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6.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7.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능을 스스로 연습한다.
		8.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취성 (5문항)	9. 자신이 목표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10. 과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11. 스스로 정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이다.
		12. 복잡한 운동기술이라도 끈기있게 도전한다.
		13. 기량이 우수한 팀이나 친구와 대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전략적 문제해결력 (5문항)	14. 자신 또는 친구의 기술 동작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15. 경기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6.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본다.
		17. 패배나 실패의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18.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공동체 참여 역량 (15문항)	존중 (4문항)	19. 수업 경기 예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20. 친구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21. 상대 선수라도 뛰어난 기술을 펼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22. 상대방이 부상을 입으면 반칙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한다.
	협력적 소통 (4문항)	23. 모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찾는다.
		24. 승리를 위해 경기 중 친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25. 모둠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26. 나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다.
	규칙준수 (4문항)	27. 승패에 관계 없이 심판이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28. 체육수업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29. 규칙을 어기고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30.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공동체 의식 (3문항)	31.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둠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2. 모둠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33. 작은 역할이라도 모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한다.

협력적 소통 4문항, 규칙 준수 4문항, 공동체 의식 3문항 총 4개 요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Cronbach' α)을 진행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50으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자기 성장 역량 영역(.944) 및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905)의 내적 합치도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요인별 신뢰도 또한 .712~.88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결과는 .520~.759로 .40이상이었다.

(4) 개념 타당도 검증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영역 하위 요인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먼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집중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개념 신뢰도 값은 <표 7>과 같이 .790~.861로 기준치(.7) 이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집중 타당도를 확보하였다(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ϕ^2)을 의미하는 결정계수와 AVE(평균분산추출값 ; 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를 비교하였다. <표 8>, <표 9>와 같이 결정계수와 AVE를 비교한 결과 각 결정계수는 AVE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배병렬, 2014),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단계에서 일부 요인 간 다소 높은 상관관계는 인정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개념신뢰도

영역	요인	문항	S.R.W.[a]	VAR(ε)	CR[b]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 인식	1	.781	.390	.861
		2	.854	.271	
		3	.748	.440	
		4	.733	.463	
	자기 관리	5	.749	.439	.833
		6	.792	.373	
		7	.599	.641	
		8	.830	.311	
	진취성	9	.691	.523	.848
		10	.774	.401	
		11	.806	.350	
		12	.779	.393	
		13	.788	.379	
	전략적 문제 해결력	14	.773	.402	.876
		15	.767	.412	
		16	.756	.428	
		17	.774	.401	
		18	.756	.428	
공동체 참여 역량	존중	19	.671	.550	.806
		20	.741	.451	
		21	.791	.374	
		22	.647	.581	
	협력적 소통	23	.802	.357	.828
		24	.702	.507	
		25	.797	.365	
		26	.648	.580	
	규칙 준수	27	.725	.474	.790
		28	.614	.623	
		29	.706	.502	
		30	.738	.455	
	공동체 의식	31	.838	.298	.860
		32	.813	.339	
		33	.807	349	

a) 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b) CR(개념신뢰도) = $(\Sigma S.R.W.)^2/\{(\Sigma S.R.W.)^2+(\Sigma Var(\varepsilon))\}$

<표 8> 자기 성장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
긍정적 자기인식	.609[a]			
자기 관리	0.406[b] (.637[c])	.559[a]		
진취성	0.441[b] (.664c)	0.359[b] (.599c)	.531[a]	
전략적 문제해결력	0.247[b] (.497[c])	0.341[b] (.584[c])	0.250[b] (.500[c])	.671[a]

a) AVE(평균분산추출값) = $\Sigma(S.R.W.^2)/\{(\Sigma S.R.W.^2)+(\Sigma Var(\varepsilon))\}$
b) 결정 계수
c)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표 9> 공동체 참여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공동체 참여 역량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
존중	.511[a]			
협력적 소통	.437[b] (.661[c])	.548[a]		
규칙 준수	.578[b] (.760[c])	.461[b] (.679[c])	.639[a]	
공동체 의식	.520[b] (.721[c])	.379[b] (.616[c])	.567[b] (.753[c])	.586[a]

a) AVE(평균분산추출값) = $\Sigma(S.R.W.^2)/\{(\Sigma S.R.W.^2)+(\Sigma Var(\varepsilon))\}$
b) 결정 계수
c)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5) 공인 타당도 검증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과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정도구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과 관련 측정도구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하위 요인은 관련된 준거 측정도구와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165~.745)이 있었다. 따라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공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공인 타당도

요인	준거 척도	출처	상관계수
긍정적 자기인식	Self-Awareness Outcomes Questionnaire	Sutton(2016)	.613**
자기 관리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검사지	허정훈(2003)	.745**
진취성	그릿-노력 지속성	Duckworth 등(2007) 조홍식(2019)	.693**
전략적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Heppner & Petersen(1982)	.657**
존중	한국형 운동선수 인성검사지	권성호 등(2014)	.424**
협력적 소통	협력적 의사소통	Meek 등(2011), 김문명(2015) 김병옥(2018)	.165**
규칙 준수	한국형 운동선수 인성검사지	권성호 등(2014)	.547**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지표	Chavis 등(1986) 양승규(2015)	.508**

*p<.05, **p<.01

(6) 교차 타당도 검증

모형이 다른 집단 또는 표본에서 재현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 연구에서 수집된 413명의 자료를 추정표본과 검증표본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중집단 분석으로 측정도구 검사를 실시하였다. 추정표본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한 206명의 자료를, 검증표본에는 나머지 20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차 타당도 검증은 ① 두 표본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태 동일성 검증, ② 각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 적합도와 형태 동일성 간의 $\Delta\chi^2$ 차이를 통한 측정 동일성 검증, ③ 측정 동일성 모형에서 절편을 동일하게 제약한 절편 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Delta\chi^2$ 차이에 대한 절편 동일성 검증, ④ 잠재변인과 요인부하량 간 공분산을 일치하게 제약한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사이의 $\Delta\chi^2$에 대한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자기 성장 역량 영역의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2=472.439(p<.001)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지만, CFI(.952), TLI(.943), RMSEA(.045)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11> 자기 성장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형태 동일성	472.439	258			.952	.943	.045
측정 동일성	489.342	272	16.902	.261	.951	.945	.044
절편 동일성	498.351	290	9.009	.960	.953	.950	.042
요인 분산 동일성	512.128	300	14.350	.158	.952	.951	.042

<표 12> 공동체 참여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형태 동일성	345.885	166			.933	.915	.051
측정 동일성	360.490	177	14.605	.201	.932	.919	.050
절편 동일성	377.599	192	17.109	.312	.931	.924	.048
요인 분산 동일성	400.338	202	22.739	.012	.926	.923	.049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으로, 측정 동일성 모형의 $\Delta\chi^2$는 16.902(p>.05)로 나타나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합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CFI=.951, TLI=.945, RMSEA=.044)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Delta\chi^2$는 9.009(p>.05)로 두 모형 간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953), TLI(.950), RMSEA(.042)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절편동일성 역시 검증되었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χ^2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또한 14.350(p>.05)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CFI(.952), TLI(.951), RMSEA(.042)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의 형태 동일성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2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χ^2=345.885, p<.001), CFI(.933), TLI(.915)는 .90 이상, RMSEA(.051)는 .08 이하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동일성 역시 $\Delta\chi^2$=14.605(p>.05), CFI(.932), TLI(.919), RMSEA(.050)로 산출되었고, 절편 동일성 또한 $\Delta\chi^2$=17.109(p>.05), CFI(.931), TLI(.924), RMSEA(.048)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산동일성은 $\Delta\chi^2$=22.739(p<.05)로 절편 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성 동일성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926), TLI(.923), RMSEA(.049)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구인 동등성 검증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가 향후 연구에서 배경변인(성별)에 따라 동일한 요인 구조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13〉, 〈표 14〉와 같이 성별 간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 적합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χ^2은 529.834(df=120, p<.001)로 두 집단간 형태 동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의 경우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합도 수치를 참고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χ^2/df(2.054)와 CFI(.935), TLI(.923), RMSEA(.051) 등 적합도 수치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는 χ^2 변화량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Delta\chi^2$=14.201 (p>.0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자기 성장 역량은 성별 간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공동체 참여 역량의 성별에 따른 구인 동등성 검증을 위해 먼저 형태 동일성 모형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공동체 참여 역량 형태 동일성 모형의 χ^2은 373.297(df=166, p<.001)로 나타나 성별 집단 간 측정도구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df(2.249)와 CFI(.922), TLI(.901), RMSEA(.055)를 참고하여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여 측정도구의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간 차이의 유의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χ^2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Delta\chi^2$=7.916(p>.05)로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표 13> 자기 성장 역량의 구인 동등성 검증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529.834	258			.935	923	.051
	측정 동일성	544.035	269	14.201	.222	.934	.925	.050

<표 14> 공동체 참여 역량의 구인 동등성 검증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373.297	166			.922	.901	.055
	측정 동일성	381.213	93	7.916	.222	.923	.909	.050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중 공동체 참여 역량의 성별 간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및 구조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역량 모형에 관한 연구는 역량 구조와 역량 수준 두 가지 모형 유형으로 구별되어 진행된다(Glaesser, 2019). 역량 구조 모형은 특정 역량의 다양한 측면을 가정하고 이들 측면과 진행 중인 연구에서의 역량과 관련성을 검토하며, 역량 수준 모형은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질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역량의 개념을 탐색하고, 역량 구조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정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을 위해 문헌고찰과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구성 개념을 탐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위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을 정의하고, 영역별 구조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 정의(안)와 영역별 구조모형(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하고, 전문가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개념 정의 및 구조 모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의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영역별 구조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모형을 완성하였다. 한편,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2개 영역이 아닌 개인-타인-공동체로 구성된 3개 영역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와 비교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는 자기 성장 역량 및 공동체 참여 역량의 두 가지 역량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영역별로 4개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자기 성장 역량은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 4개 하위 요인으로, 그리고 공동체 참여 역량은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요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일부분 유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등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구안된 자기 관리, 전략적 문제해결력, 협력적 소통, 공동체 의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ulewicz(1989)는 직무 역량 관련 연구에서 맥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유한 역량이 전체 역량 중 30%이며, 나머지 70%는 조직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체육과 교과 역량이 신체 활동 가치에 구조적으로 연계된 듯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박정준, 2017; 오승현, 2019; 윤기준, 2019), 체육 교과의 학습 수단인 신체 활동적 측면, 즉 역량 중 기능적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다르게,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은 기술 또는 지식 관련 역량 요소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명수(2017)는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현장 적용 관련 연구에서 체육과 교과 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을 관련지었는데, 건강 관리 능력의 경우 총론의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기 수행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역시 두 개의 상위 영역에서 각각 4개의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역량 하위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체육과 교과 역량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역량 하위 요소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은 교육 현장에서 체육교사가 역량 기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다. 다양한 역량 요인이 '전반적으로 통합된 전문 능력'으로서 체육과 교과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이 범교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교과 특수성에 따라 함양해야 할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장용규, 이정택, 2016).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량을 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치 영역(예를 들면, 건강, 도전, 표현 등) 내에서 특정한 역량(예를 들면, 건강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 도전 영역에서는 신체 수련 능력, 표현에서는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만들어 교육 목표 설정, 학습 내용 구성, 학습 평가가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체육교사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오해했을 경우 특정 가치 영역에 따른 한정된 특정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반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는 특정 가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역량 기반 체육수업이 가치 영역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체육 교사가 도모하고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자신이 정한 신체활동 가치 영역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심리 역량 측면에서 역량 개념과 구조를 다루었는데, 특히 자기 성장 역량 및 공동체 함양 역량과 같은 역량 영역의 구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교육시스템에서 '행동 역량(behavioural competency)'을 구분하는 방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Deist & Winterton, 2005).

독일의 시스템은 지식 및 기술 등의 내용중심 교육에서 교과에서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행동 역량'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목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Straka, 2004), 오스트리아 역시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역량을 인지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Archan & Tutschek, 2002; Deist & Winterton, 2005). 먼저, 과목 역량 및 인지 역량은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적 역량은 개인의 인격으로서 가족, 직업, 나아가 보편적 생활에서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고 분석하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물론 인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능력에는 독립성, 비판적 능력, 자신감, 신뢰성, 책임감, 의무 인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은 관계에 관해 이해하려는 의지, 사회적 책임과 연대 등 타인과 교류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행동 역량의 구분 방식과 세부 내용들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구분 및 하위 요인과 개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역량 구조에 대한 연구의 유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는데, 향후 연구는 구조에 대한 개선 뿐만 아니라 특정 맥락에 따라 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연구에서 진행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의 결과는 역량 영역별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기초가 되며, 이를 토대로 현장의 체육 교사들은 역량 기반 체육수업의 안내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모형 구안과 요인 탐색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제한된 상황 하에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이는,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분석법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이 우연적으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따라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 구인타당도 검증에는 표본분할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개념 타당도 검증, 판별 타당도 검증, 공인 타당도 검증을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 진행 시 배경변인(성별)에 따른 요인 구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집단 간 동일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강상욱(2019).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1].

권성호, 전현수, 이근철(2014). 한국형 운동선수 인성의 개념구조 및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1), 115-128.

권윤철(2017).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화된 교과역량요소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택환(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초등학교 맨발활동 탐색. **인문사회21, 10**(1), 757-772.

김낭규(2020). 체육과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형 스포츠클럽 모형의 실천 사례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3), 1-15.

김명수(2017).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3**(1), 1-14.

김문명(2015). **외식프랜차이즈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파트너십 품질과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병옥(2018).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서 평생교육 부서장과 기관장의 공유리더십, 평생교육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적 의사소통, 조직효과성,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1.**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남재식, 이영석(2018). 신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4**(2), 33-52.

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체육학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이용의 문제점과 올바른 적용.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6**(1), 1-22.

박정준(2017). 체육 교과 역량 함양 교육에 관한 지도주체별 인식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2), 1-17.

박지영, 김수연, 장경환 (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생태주의에 입각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수업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9**(21), 427-452.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신민혜, 조남기(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표현영역에서의 창의역량 하위요인과 적용.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3), 121-133.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양승규(2015). **스포츠 참여 아동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공동체의식, 참여만족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승현(2019). 체육 교과의 역량 개념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전인교육과 신체 역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22**(2), 1-17.

윤기준(2019). 차기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쟁점. **체육과학연구, 30**(2), 360-370.

이근호, 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7-8.

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이근호,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체육과와 수학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6-6.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건남 (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효신(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용규, 이정택(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의 의미와 초등체육의 지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1), 77-91.

정성휘(2004). 비서의 핵심역량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3**(1), 23-43.

조기희(2017).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융합체육 수업 사례. **우리체육, 16**, 21-25.

조홍식 (2019.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들의 그릿(Grit)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927-943.

진의남, 유창완, 장근주, 이영미, 박소영, 양윤정, 백경선, 류상희, 박정준(2015).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8.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 50**(1), 93-107.

허정훈(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SMQ)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95-109.

홍순정, 장은정, 서윤경(2004). 원격교육 교수자의 역량 모델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2), 81-112.

홍애령, 조미혜(2019). 역량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 요소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551-571.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rchan, S. & Tutschek, E. (2002). *Schlu¨sselqualifikationen: Wie vermittle ich sie Lehrlingen?.* Vienna: 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Azzarito. L., Solomon. M. A. (2006). A poststructural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gendered and racialized bodily meaning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5*, 75-98.

Chavis, D. M., Hogge, J. H., McMillan, D. W., & Wandersman, A. (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24-40.

Deist, F. D., & Winterton, J. (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Dubois, D. D. (1993).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MA: HRD Press.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ulewicz, V. (1989). Assessment centres as the route to competence, *Personnel Management, November*, 56–59.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Glaesser, J. (2019). Competence in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a critical discuss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45*(1), 70-85. DOI :10.1080/03054985.2018.1493987.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https://doi.org/10.1037/0022-0167.29.1.66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M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Meek, W. R., Davis, S. B., Baucus, M. S., & Germain, R. N. (2011). Commitment in franchising: The role of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nd a franchisee's propensity to lea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3), 559-581.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 (DeSeCo).* OECD Press.

OECD(2017).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EDU/EDPC(2017)25].

Siedentop, D., Doutis, P., Tsangaridou, N., Ward, P., & Rauschenbach, J. (1994). Don't sweat gym! An analysi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3*, 375-394.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Sutton, A. (2016). Measuring the effects of self-awareness: Construction of the self -awareness outcomes questionnaire.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2*(4), 645-658.

Straka, G. A. (2004)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mpetence, in: *3rd European Research Re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ssaloniki: CEDEFOP, forthcoming).

Turner, S. L., Trotter, M. J., Lapan, R. T., Czajka, K. A., Yang, P., & Brissett, A. E. A. (2006). Vocational Skills and Outcomes Among Native American Adolescents: A Test of the Integrative Contextual Model of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54*(3), 216-226.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PEPC-MS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o develop scale of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with proven validity and reliability based on them.

Method: To derive psychological competency concepts, psychological competency areas and subfactor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14 professional groups. Based on this, 413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nd validated.

Result: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 was two sub-factor structures, such as self-growth competency and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and to define the concepts for each domain and sub-factor. Specifically, sub-factors of self-growth competency consisted of positive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initiative, and strategic problem-solving, and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were derived from respect, cooperative communication, rule compliance,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 addition, 18 items of self-growth competency and 15 items of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were determined to measure the PEPC-MS scale.

Conclusion: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psychological competency of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provided a basis for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competency concept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Key words: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self-growth competency,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논문투고일 : 2021.07.15
논문심사일 : 2021.07.31
심사완료일 : 2021.08.15

한국교원대학교 | IP:210.110.71.*** | Accessed 2022/01/05 06:57(KST)